

(필리핀 타나완국립고등학교 완공식)

## 인 사 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간당 하폰?(오후인사)

친애하는 레이테 주지사님, 타나완 시장님, 팔로 시장님, 톨로사 시장님, 타나완 국립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 학생들과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불교 대표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친구가 되어 태풍 피해 복구작업을 같이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의 대표입니다. <통역>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은 좋은 인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2013년 이 땅에 시련을 안겨준 하이엔 태풍이 인연이 되어 우리는 만났습니다.

작년에 매스컴을 통해 보았던 처참했던 광경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에 왔는데, 이렇게 늠름하고 멋있는 우리 학생들을 만나는 순간에 걱정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반가운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통역>

우리 동양의 속담에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시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언제나 힘이 들거나 항상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것이며, 지금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면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삶의 진리입니다. <통역>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큰 재난을 당했을 때,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손잡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통역>

돌이켜 보면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전쟁터에 달려와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우리는 좋

